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 구성에 관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an Activity
Construction for Character Learning
Utilizing Kim Man-Deok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고 수 선

2014년 8월

석사학위논문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 구성에 관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an Activity
Construction for Character Learning
Utilizing Kim Man-Deok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고 수 선

2014년 8월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 구성에 관한 실행연구

An Action Research on an Activity
Construction for Character Learning
Utilizing Kim Man-Deok

지도교수 김 은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 수 선

2014년 5월

고 수 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광 중 인

심사위원 김 은 석 인

심사위원 류 현 중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5
1. 여성인물학습의 필요성	5
2. 인물학습 소재로서의 '김만덕'	7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0
1. 학습 활동 구성	10
2. 학습 활동 실행 및 분석	17
3. 학습 활동 재구성	30
IV. 결론 및 제언	35
참고 문헌	38
ABSTRACT	41
부 록	43

표 목 차

〈표 부록-1〉 김만덕 인물 관련 자료	46
〈표 부록-2〉 김만덕 일화 중심의 이야기 자료	48
〈표 부록-3〉 〈활동 1〉 교수·학습 지도안	50
〈표 부록-4〉 〈활동 2〉 교수·학습 지도안	53
〈표 부록-5〉 〈활동 3〉 교수·학습 지도안	55
〈표 부록-6〉 김만덕에게 쓰는 편지 활동 - 편지지	57
〈표 부록-7〉 신사임당과 김만덕 마인드맵 - 활동지	58

그림 목 차

[그림 Ⅲ-1] 한 여학생의 김만덕에게 편지쓰기 활동 내용	20
[그림 Ⅲ-2] 김만덕과 신사임당 마인드맵 ①	26
[그림 Ⅲ-3] 김만덕과 신사임당 마인드맵 ②	26
[그림 Ⅲ-4] 마인드맵 활동 내용 정리	27
[그림 부록-1] 김만덕 표준 영정	44
[그림 부록-2] 김만덕 그림과 합성한 5만원권 지폐 자료	45

국 문 초 록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 구성에 관한 실행연구

고 수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은 석

이 연구는 현재 역사학습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여성인물학습 활동의 구성 및 실행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여성인물학습을 접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여성 인물에 대해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여성인물학습 이전에는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인물로 각 분야의 남성만을 말했다. 하지만 ‘김만덕’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을 한 후에는 ‘김만덕’을 제시하거나, 또 다른 여성 인물들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여성인물학습의 실행을 통해 학생들은 여성인물의 탐구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인물학습을 위해서는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 여성 인물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혹은 당시 여성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시대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왔다. 이는 시대별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의무가 각기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물학습을 위해서는 상황적,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더 나은 여성인물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다양한 여성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의 여성상은 잘못되었다거나, 반드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여성만이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수업은 남성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수업 방식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처럼 여성인물학습은 민주사회 및 양성평등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와 균형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욱 실효성 있는 여성인물학습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여성인물학습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인물학습이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삶의 가치를 사회과 학습에 적용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예시 자료가 많아진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여성 중심으로 치우쳐 사고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여성인물학습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여성 중심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접근해야 하겠다.

주요어 : 김만덕, 여성인물학습, 역사, 다양한 시각과 생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역사란 사람들의 지나간 이야기이다. 인간이 빠진 역사는 생명이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널리 알려진 위인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역사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라는 무대에 존재했던 남성과 여성 또한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학습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균형 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초등학교 역사학습의 관행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편향적이다. 역사 인물의 제시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역사 교과서에서는 국가를 건국한 이를 소개할 때마다 남성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남성만이 지배층으로 구성되어있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가 하면 남성은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여성은 덜 중요하며 소비적인 역할을 하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물론 양성 평등의 이념이 확산 되면서 전 교과서의 교과서 삽화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인물의 비중을 균등하게 두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남성만이 등장한 교과서 삽화 구성을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하지만 양성이 균등하게 등장하는 삽화를 학습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양성 평등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주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과거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 역사를 배우면서 적어도 역사 속의 여성의 존재감이 남성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 속에서 역사학습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역사적 여성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를 교재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역사의 주체인 여성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 민주적인 사회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물학습 구성 및 실행을 시도하였다.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학습해야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김만덕'을 활용하여 역사인물 학습 활동을 구성·실행·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인물학습의 의미와 방향을 성찰해보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 1) 사회과 역사학습에서 여성인물학습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역사 속 여성 인물 '김만덕'의 삶 속에서 역사학습 내용을 추출하였다.
- 2) 여성인물학습의 활동을 구성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 활동 재구성 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3) 실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역사학습에서의 여성인물학습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실행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란 실천연구, 수행연구, 현장연구, 교실연구 등으로 불리며, 교육 실재를 재구성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자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반성과 실천을 반복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다(이명숙, 2001).

기존의 여성인물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인물 선정 방법이나 필요성을 밝히는 등의 이론 제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실행연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여성인물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실행하고, 수업의 실제적인 효과나 한계를 도출하여 더 나은 여성인물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인물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만덕'의 삶 속에서 다양한 내용 요소를 도출하여 '김만덕'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제주도 D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7명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후,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과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인물학습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구성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다.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는 역사인물학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보면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등장 횟수가 확연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의 주요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남성편향적인 내용 구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정해숙 외, 1993), 「초·중등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 역할 연구」(이정희, 1997) 등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 편향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결국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듯 사회과 역사학습에서 여성 인물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속 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역사적 여성 인물을 소개하거나 역사 속의 여성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는 「사회과 인물학습을 위한 여성 인물 선정과 교수·학습 방안」(김현숙, 2000),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 관련 서술 분석」(박선주, 2014), 「젠더 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정수자, 2009) 등이 있다.

이 같은 선행 연구에서는 역사 속의 여성 인물을 소개하거나 역사학습에서 여성 인물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더불어 여성인물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었다. 또는 여성인물학습 시 여성 인물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인물학습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여성인물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여성인물 선정 방법을 제시

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인물학습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성인물학습 활동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 '김만덕'을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김만덕'을 선정한 이유는 「김만덕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양성국·김봉현, 2012), 「제주 여인, 김만덕」(김은석, 2011),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이창훈, 2011) 등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김만덕'의 삶 속에서 시대를 앞서 나간 진보적인 사고와 주체적인 가치관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김만덕'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남성과 함께 여성 또한 역사 속에서 선구적인 행보를 해나갔음을 인식하게 할 것이며 이는 양성평등 사회에 걸 맞는 균형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인물학습의 필요성

여성인물학습은 학생들에게 그동안 사회과 역사학습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남녀가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현재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여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인물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여성 인물을 찾아보면 선덕여왕, 명성황후, 신사임당, 허난설헌, 혜경궁 홍씨, 유관순이 전부이다. 분명 여성이 역사 속에 존재했음에도 현행 교육과정에는 여성의 공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성 인물의 등장 여부를 파악해보거나 제시된 여성 인물의 수를 남성과 단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여성인물의 부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인물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남성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남성을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낸 반면에 여성은 덜 중요하고 소비적인 역할을 하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김정자, 1986). 또한 교과서가 훌륭한 남자들의 이야기로 뒤덮여 있고 남자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가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여학생들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감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등감을 쌓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라를 세우거나 외세에 맞서 큰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은 모두 남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남성지배적인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몇몇 여성들은 그나마도 대부분 효녀이거나, 훌륭한 어머니, 좋은 아내인 사례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유교 사회의 시각 속

에서 평가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활약했던 여성들은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과소평가 되고 있다. 이는 지배 집단인 남성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며, 학교의 지식도 남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지식의 선정, 조직, 분배를 통하여 성 고정화된 관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닌다.

남성 편향적 인물학습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역할이나 삶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교육은 현대 사회의 생활 측면과도 유리되며, 학생들의 인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소성희, 1997). 때문에 오늘 날처럼 여성의 사회생활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역사적 여성 인물학습을 사회과 역사학습에 활용하는 작업이야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있는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역할 모델로서의 삶의 모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여성의 삶의 자취가 인정됨으로써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어 정서적으로 높은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전통적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은 여성 역사의 풍부함과 과거 여성 문화의 독특함을 볼 수 있고, 과거를 인지하는 방법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영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원고인 The Final Report of History Working Group에서는 “교사는 언제든지 적절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사적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성은 단지 사회사의 일부로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정치, 전쟁, 상업, 과학 등 전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던 맥락에서도 학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여성인물학습은 사회과 역사학습에 꼭 필요한 형태의 학습이다.

이러한 여성인물학습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성인물학습의 도입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 역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남녀가 모두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여전히 소외된 다수로 남지 않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

는 역사를 접해봄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역사교육에서 다루어졌던 남성 대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다양한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역사수업에 활용한다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도록 돕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2. 인물학습 소재로서의 ‘김만덕’

여성인물학습 활동을 구성하기에 앞서 가장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은 여성 인물 선정 문제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인물학습에서의 인물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인물 선정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선행 연구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한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 그 시대의 변천과 발달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 향토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대략 정리할 수 있었다(송춘영, 1982). 일본이나 미국의 인물 선정의 기준도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깊이 살펴보면 인물 선정 시 반드시 국가적인 위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즉, 평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물, 보통의 시민들, 보통의 과거의 사람들도 선정되고 있었다(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s, 1994).

이를 바탕으로 역사 속 ‘여성’ 인물 중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더 나아가 아직 평가가 확정되지 못하고 대중적이지 않은 보통의 과거 사람의 범위까지 넓혀 여성 인물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동안 역사 수업 속에서 그려졌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상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 인물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 ‘김만덕’을 여성인물학습의 인물로 선정할 수 있었다.

‘김만덕’은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다. 과거 5만원권 지폐 도안의 인물을 선정할 때, 소서노, 선덕여왕, 허난설헌, 유관순, 김만덕이 후보에 올랐는데 인물들의 삶과 업적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신사임당이 선정된 바 있다. 예술적인 업적을 이룬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 나라를 세우거나 독립운동을 했던 소서노와 유관순, 최초의 여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선덕여왕 같이 눈에 띄는 업적이나 국가 전체를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행적이 김만덕에게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살았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녀의 행보를 살펴보면 역사인물로서 '김만덕'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갖는다.

인물학습 소재로서의 '김만덕'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녀의 삶의 모습을 연관 지어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김은석, 2011).

첫째, '김만덕'은 엄격한 신분 사회를 허물고자 노력하고 부조리한 시대 정신에 대항했던 첫 여성 도전자였다. '김만덕'은 엄격한 유교사회, 봉건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았던 인물이다. 엄격한 계급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천민의 신분이었다. 어떻게 하여 기생이라는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기록은 없으나, 결국 양인으로 신분 상승하게 되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문제의식과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되었음이 짐작된다. 자신의 신분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했음에 틀림없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한 인간의 위대함이 엿보인다. 보통 양반의 첩이 되는 식으로 남에게 의존하여 기생 신분을 벗어나는 보통의 경우를 택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녀가 진취적인 삶을 살아나갔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둘째, '김만덕'은 경제 활동의 새로운 주체가 되고자 했던 여성 직업인이었다. 봉건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나가기 힘든 위치에 놓여있었다. 특히 '김만덕'이 살았던 당시 제주에는 척박한 주변 환경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웠으며 여성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잠수 작업 정도로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김만덕'은 사농공상의 직업의식이 팽배했던 사회에서 양인으로 신분 상승했음에도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았다. 스스로 제일 천하게 인식되었던 상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이 같은 그녀의 행보는 봉건적 제약의 틀을 극복한 주체적 여성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직업과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예견하는 몇 세기 앞선 시대적 안목을 지닌 여성임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셋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성숙한 여성이었다. '김만덕'은 직업 여성이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치열하게 돈을 벌었다. 그런데 제주의 큰 흉년이 들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 자신을 위해 부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다. '김만덕'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마

주했을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성숙한 인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빈부의 차이를 개인 노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해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행보이다. 동시에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 타인의 불행을 타인의 노력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 '김만덕'은 우리보다 몇 세기 이전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빈부의 차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는 베품의 미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현대 사회에 시사 하는 점이 크다.

이처럼 '김만덕'은 역사 속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지금까지의 역사 수업에서 조명되지 못하였다. 인물학습 소재로서의 '김만덕'을 발굴하는 작업을 통하여 사회과 역사수업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꾸며 내실 있는 여성인물학습 활동 구성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학습 활동 구성

‘김만덕’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의 방법을 다양한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김만덕’의 삶과 행적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왜 그렇게 행동 하였는가’를 시대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피는 활동을 통해 다각적으로 인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학습 활동 구성의 목적이다. 또한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하였으나 소외되어 왔던 여성 인물을 기존의 남성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의 목표, 자료, 세부 활동 및 활동 진행상의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구안한 활동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

가. <활동 1> 조선시대의 여인 김만덕, 그녀는 누구?

1) 활동 개요

‘김만덕’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녀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는 신분이 철저히 구분되어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신분사회였다. 또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했던 사회였다. <활동 1>에서는 여성 ‘김만덕’이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나갔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해 ‘김만덕’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다. <활동 1>의 세부 활동을 위해 김만덕의 인물 그림,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 지폐, 김만덕이 그려진 5만원권 지폐 모형, 김만덕 이야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1) 각 활동을 구체화한 지도안과 활동 자료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세부 활동

① '김만덕' 인물 그림 보며 이야기 나누기

'김만덕' 인물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여 보는 활동이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만으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발문이 이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 대부분 학생들은 역사적 인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위인이며 그 위인은 남성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범해 보이고 역사 속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김만덕'이라는 여성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의외의 내용을 제공한다. 과거에 나라를 세웠거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큰 업적이 있거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역사학습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하는 비범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② '김만덕' 사진이 들어있는 5만원권 지폐에 대한 생각 나누기

신사임당이 그려진 실제 5만원권을 김만덕이 그려진 5만원권으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과거 사람의 인물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학생들은 인물의 모습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그려진 실제 5만원권과 함께 김만덕이 그려진 가상의 5만원권 모형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과거 5만원권 지폐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사임당과 함께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에는 유관순, 소서노, 김만덕 등이 있었다. 신사임당, 유관순, 소서노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있지만 김만덕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사임당이나 유관순과 같이 선정 후보였다는 사례를 밝힘으로써, '김만덕'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임을 알게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명하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도 역사 속에 숨어있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③ '조선시대의 김만덕' 탐구하기

조선시대의 유교사회, 봉건사회를 살았던 김만덕이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했고, 출륙금지령이 실시되던 변방의 제주인인 김만덕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고자 했던 파격적 행동의 의미를 살피도록 한다.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탐구하는 기회를 통해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도하는 수업이라면 활동 전에 조선 시대의 신분, 계급 등이 충분히 사전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지위나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 시대마다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여성을 둘러싼 그 시대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만덕'의 행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 활동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활동 요소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이뤄나간 '김만덕'의 주체적인 삶의 태도이다. '김만덕'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은 먼저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그 당시에 천민이었던 신분을 뛰어 넘어 양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둘째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조선시대에 자신이 뜻한 바로 상인이 되었고, 직업인으로서도 충실하게 살아서 결국 거상이 되어 목표한 바를 이뤄낸 모습에서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출륙금지령²⁾이 실시되던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자신을 가두는 체계를 부정하고 극복해 나가고자 했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엄격한 신분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자료,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만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 중심의 이야기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활동들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김만덕의 삶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김만덕' 되어보기

자신이 조선시대를 사는 '김만덕'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하여 발표하는

2) 출륙금지령은 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이다. 중앙 관리와 지방 토호의 이중 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의 증대 등으로 제주 유민의 수가 증가하고 제주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는 지정학적·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 유민 정책의 일환으로 출륙금지령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 도민들은 육지와의 단절로 더욱 고립되게 되었다.

활동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두지 않고, 김만덕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를 살았던 여성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은 어떻게 하였을 지를 판단하도록 활동한다. 이 활동에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활동의 도입 부분에서 조선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마련됐을 때, 학생들은 ‘김만덕’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더 명확하고 현실감 있는 판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교사가 인물 평가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의 ‘김만덕’의 행위를 판단 할 수 있는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찾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김만덕에게 편지 쓰기

김만덕에게 편지를 써보는 활동이다. 앞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을 총체적으로 내면화하는 활동이며 동시에 자신의 기준을 마련하여 ‘김만덕’ 인물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활동이다. ‘김만덕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와 같은 발문이 필요한데 이는 ‘김만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편지 쓰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풀어내기 때문에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활동에 비하여 학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며, 일기 쓰기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가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때문에 인물에게 편지 쓰기 활동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한 방법이다. 역사 속의 생소한 인물에게 한 걸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나. <활동 2> 21세기 리더십, 나눔과 베품의 정신

1) 활동 개요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살펴보는 것이 목표이다. 단순히 교훈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보다 널리 나누고자 했던 인물의 가치관이 어떻게 시대적 배

경 속에서 정립되었는지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김만덕’이 살았던 제주는 토질이 척박하고 농사 지을 땅이 적기 때문에 여느 지역에 비해 자주 기근에 시달리던 특수한 환경의 지역이었다. 특히 정조 16년(1792)부터 19년까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흉년이 계속되었고, 정조 16년 가을에는 전례 없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 달했으며 정조 17년 8월에는 태풍으로 정의(旌義)와 대정(大靜) 두 고을이 폐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8년 8월에도 큰 바람과 해수가 몰아쳐 제주의 모든 곡식이 절단이 나 버렸으며 그 해 9월에 제주 목사 심낙수는 이 같은 제주의 상황을 겪어 본 적 없는 재앙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활동 2〉에서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사회 구조의 한계 속에서 역경을 극복한 보상 심리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몰두하던 ‘김만덕’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자기 삶의 가치를 ‘부(富)’에서 ‘나눔’으로 변화 시킨 이유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나뉘인다. 활동을 위한 자료로 10만 인구가 3만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빈곤했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자료, 나눔과 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는 일화(김인숙, 2006)를 발췌하여 이야기 자료로 제공한다.

2) 세부 활동

①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살펴보기

부(富)를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태도를 벗어나 지역민들에 대한 공감을 통한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를 찾아보는 활동이다. 한 인물의 삶의 태도를 추리해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역사 인식 과정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더 원활하게 인물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때문에 ‘김만덕’이 살았던 제주의 척박한 환경, 가뭄과 흉년 때문에 10만이었던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시대적 배경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김만덕’의 일생을 다룬 책(정창권, 2006)에서 일화를 발췌하거나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② 직업인으로서 '김만덕' 들여다보기

조선시대에 여자로서, 미혼자로서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김만덕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마음의 미덕을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이다.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상황을 살펴보고 '김만덕'이 직업을 갖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지 상상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모은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던 '김만덕'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때, 스스로 역사 인물에 대해 판단해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이나 인물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이나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다. <활동 3> 같은 시대, 다른 생각

1) 활동 개요

<활동 1>과 <활동 2>에서 '김만덕'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그에 따른 실천 모습을 살펴보았다. <활동 3>에서는 '김만덕'과 비슷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다른 여성과 비교·분석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에 또 다른 여성을 추가하여 구성한 이유는 먼저, 한 인물의 삶을 맹목적으로 이상시하는 기존의 인물학습을 경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같은 시대, 동일한 사회 규범 속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세우고 살았던 다양한 여성이 역사 속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두 인물을 비교·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인물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여성상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만덕과 함께 비교한 인물은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을 도입한 이유는 '김만덕'과 같은 시대, 같은 사회 체제를 경험하였지만 이를 대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전혀 달라 '김만덕'과 분명한 대비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만덕'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한계를 깨뜨리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던 조선시대의 여성이었다면,

‘신사임당’은 자신이 속한 사회 규범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며 살았던 현모양처로 대표되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인물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를 떠나 실제로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 학생들은 여성인물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활동 3>에서는 마인드맵 구성 학습지와 ‘김만덕’이 되어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마련된 편지지 자료를 활용한다.

2) 세부 활동

① ‘신사임당’에 관한 사전 조사 내용 발표하기

‘신사임당’에 대한 조사 과제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조사 과제를 할 때, 인물의 일대기 전체를 시간 순이나 나열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이 전에 학습했던 ‘김만덕’ 인물학습 방법을 상기시켜, ‘신사임당’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개별 사전 과제로 하더라도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모둠끼리 내용을 발표하거나 보충하여 ‘신사임당’에 관한 사전 지식의 내용이 더 풍부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 인물 마인드 맵(mind map) 정리하기

‘신사임당’은 고전적 여인상의 표본이자 현모양처의 대표 인물이다. 가부장적인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꼽히는 신사임당의 삶을 살펴보고 같은 시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였던 두 인물에 대하여 마인드 맵(mind map)으로 정리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마인드 맵(mind map) 정리하기 활동 후, 자연스럽게 ‘김만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안내한다

③ ‘21세기 여성상’ 세우기

‘김만덕’과 ‘신사임당’, 두 인물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현대의 어머니상, 여성상을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토론학습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에게 ‘우

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는 어떤 여성상이 적합할까?’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앞에서 학습한 ‘김만덕’과 ‘신사임당’의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타당한 근거를 찾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활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틀린 생각은 없다는 것을 토론 전에 학생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④ ‘김만덕’이 되어 현재의 나에게 편지 쓰기

〈활동 1〉에서는 여성 인물에게 편지 쓰기를 통해서 인물을 판단 및 평가하였다. 〈활동 3〉에서는 인물에 대한 판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인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인물이 나에게 편지 쓰는 형식을 도입한다. 이 활동은 역사 인물의 삶을 통해 현대 혹은 미래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학생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여성 인물의 시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성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2. 학습 활동 실행 및 분석

구성한 학습 활동을 가지고 실제로 제주도의 D초등학교 4학년 27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행연구의 참여자로 4학년 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김만덕’이 제주 여성이므로 지역교과서를 학습하는 3, 4학년이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3학년에 비하여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4학년을 선택하였다. 둘째, 4학년은 본격적인 역사학습이 시작되는 5, 6학년에 비하여 기존의 역사학습 방법에 덜 노출되어 역사 인물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실행 결과, 실제로 학생들은 여성인물학습이라는 낯선 학습 방법에 대한 생소함을 느끼기 보다는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서 선입견 없이

몰입하여 수업에 임했다.

활동 구성에 따른 실행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과 생각을 관찰·기록하고 결과물을 수집하였으며,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토론학습 활동의 경우, 학생들 생각의 변화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가. <활동 1>의 실행 및 분석

<활동 1>에서 처음으로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생소한 역사 인물에 대한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대신 김만덕을 합성하여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전반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폐에 실린 건가’, ‘과거에 중요한 업적을 세운 사람인가’와 같은 의문을 갖고, ‘김만덕’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김만덕’ 인물 그림을 제시했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림 자료의 제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차원을 넘어 ‘김만덕’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학생들에게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더군다나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외모의 김만덕의 사진을 접한 후에, 5만원권 지폐 인물 선정을 위한 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외라는 생각에 더욱 흥미를 보였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호기심에 기반 한 것으로 보여 진다.

<활동 1>은 신분사회, 남성중심 사회를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 ‘김만덕’의 삶에 대한 진취성과 주체성을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신분사회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신분을 바꾼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던 체계였다. 이 때문에 ‘김만덕’이 기생이라는 천민 신분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양인으로 신분을 바꾼 일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러나 학습 대상이 4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조선시대, 신분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수업 구성 시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반응이 도출되지 않았다. 신분이 존재하였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을 바꿨던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신분을 바꿨던 '김만덕'의 행보를 보고, 학생들이 '김만덕'이 시대를 앞서는 생각을 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크게 인정받아 마땅한 의미 있는 행위라고 파악 하길 기대하였다. 하지만 실행 결과, 학생들은 시대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가 미흡하여 신분을 바꾸는 것이 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 크게 몰입하지 못하였다. 결국, 학생 스스로 '김만덕'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교사의 적극적 설명을 통해 인물 행위에 대한 의의를 습득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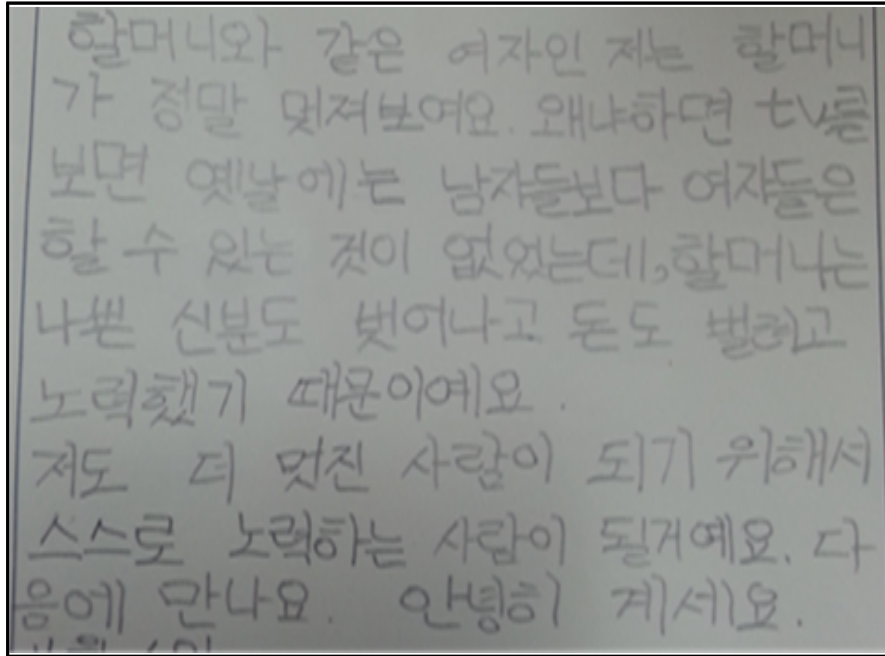
학생들이 역사 인물에 대하여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첫째, 지역교과서를 통하여 지역사를 학습하고 있다는 하나 그 내용 구성이 지역사 보다는 향토지리의 내용으로 치우쳐있어, 스스로 역사 문제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고 판단해 볼 연습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역사 인물을 접했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김만덕'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을 통해서도 이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활동지를 분석해보면 '김만덕'의 주체적인 삶을 단순히 칭찬하거나 인물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다짐을 하는 양상으로 학생들의 생각이 주로 나타났다.

- S1 : 안녕하세요? ... 할머니가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신분을 바꿀 생각을 하셨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 S2 : 김만덕 할머니, ... 주변에서 신분을 바꾼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았나요? 저라면 용기가 나지 않았을거예요.
- S3 : 신분을 바꾸려고 생각하다니 저도 할머니처럼 나쁜 제도는 고쳐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한 여학생의 편지쓰기 활동 내용((그림 III-1))을 통해 여성인물학습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반응도 볼 수 있었다. 이 학생은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남성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만 인식했었다고 고백하면서 '김만덕'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을 통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 역사 속에 존재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자의 여성인물학습이 학생들

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I-1] 한 여학생의 김만덕에게 편지쓰기 활동 내용

이 활동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물의 삶에 대한 분석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성찰할 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과 같은 여성을 탐구함으로써 여성도 역사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 학습에서 여성에게 주목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시각을 접하게 할 수 있었다.

나. <활동 2>의 실행 및 분석

먼저, 당시 빈곤했던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과 관련 있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다. 듣고 상상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당시 '김만덕'이 처했던 상황에 몰입할 수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 상황을 알게 된 학생들은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

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김만덕’이 배품을 실천했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서 자신의 의지로 상인이 되어 돈을 벌었던 직업인으로서의 ‘김만덕’을 살펴봤다. 돈을 버는 상인은 천한 것으로 생각했던 조선시대에 자신이 뜻한 바를 위해 스스로 상인이 되고자했던 점은 ‘김만덕’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활동 2>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직업 분포도를 바탕으로 ‘김만덕’을 바라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업은 중요한 사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거상이 되었던 그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자신이 ‘김만덕’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 지에 대한 물음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³⁾

T :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김만덕은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어려운 이를 위하여 썼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김만덕의 삶, 주변 상황 등을 떠올리며 자신이 김만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S1: 그런데 그 돈은 정말 어렵게 번 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 힘들었을텐데 제가 김만덕이었다면 아까워서 그렇게 많이 기부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S2: 저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노력해서 신분도 천민에서 벗어났지만 아마도 천민 출신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무시하고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

3) ‘내가 김만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 간의 토론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교사는 T, 학생은 S라고 밝혀 기록하였다. 15분이 넘게 참여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근거를 바탕으로 유형을 나눠 정리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S3: 조선시대는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깔보던 시대인데, 그나마 부자라서 덜 무시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만덕이었다라면 내 재산 전부를 남을 돕는일에 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S4: 제가 김만덕이었다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김만덕은 부자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S5: 자신도 천민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김만덕이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S6: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남을 도우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남을 도왔던 김만덕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7: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던 여자가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김만덕'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는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S1, S2, S3).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인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깝다'거나 '부자였기 때문에 여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므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안된다'고 보는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둘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찬성 의견이다(S4). '자신이 쓸 돈을 남겨놓는다'든지,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나눠 주겠다'는 조건부 찬성의 의견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타주의에 기반한 찬성 의견을 보였다(S5, S6, S7). 자신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공감에 따른 기부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선행의 차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이 끝난 후 거수로 확인한 결과, 40% 정도의 학생은 힘든 상황에서 모은 자신의 돈을 모두 다 기부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고, 그럼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학생들은 60%로 조금 더 많았다. 생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렇듯 다양해 보이는 의견도 결국,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이뤄낸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나눠준 '김만덕'의 행보에 대한 '존경심'이 기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2〉를 구성한 연구자의 의도는 역사 인물의 삶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보는 ‘가치화’ 작업의 실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토론 내용을 이끌게 했던 연구자의 발문이 문제였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란 연구자의 발문을 학생들은 “나라면 김만덕처럼 선행을 할 수 있겠니?”라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유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끌어내어야 할 발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역사 인물에 대한 판단을 이미 교사가 내리고 나서 이를 반영한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활동 2〉의 실행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역사 인물의 삶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도출하는 가치화의 수업은 자칫, 교사가 가치를 주입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가치를 습득하는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치화 수업 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가치 판단이 배제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업을 구성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 〈활동 3〉의 실행 및 분석

〈활동 3〉에 앞서, ‘신사임당’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제를 개인별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 3〉의 도입에서는 모둠활동을 통해 조사 내용을 공유하여 사전 지식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신사임당’을 조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신사임당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물의 일생 전반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 그 첫 번째 유형이다.

신사임당은 1504년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시대 중기의 화가이자 작가였다. 조선시대 중기의 성리학자 겸 정치인인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림, 서예, 시 재주가 탁월하였고 고전이나 역사 지식 등에 해박하여 명성을 날렸으며 1551년에 심장질환으로 병환을 얻어 사망하였다. 〈학생 ○○○의 사전조사 내용〉

이처럼 조사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문헌자료에서 조사한 그대로를 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신사임당의 삶 중에서 교훈이 드러나는 일화를 중심으로 조사한 형태였다. 예를 들면, 아들인 율곡이이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한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일화나 예술적 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던 일화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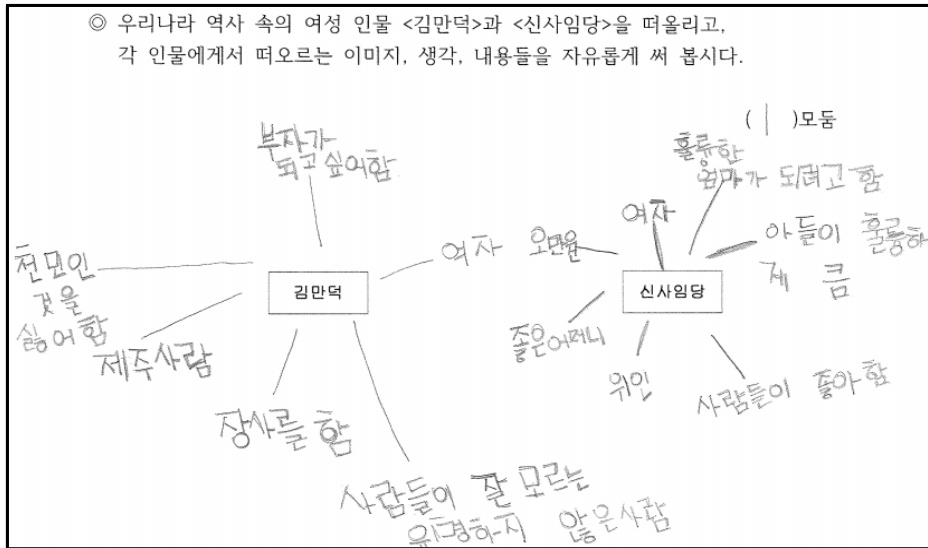
조사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신사임당'에 대한 사전 인식을 파악해보았는데, 학생들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던 좋은 어머니', '가정을 잘 돌본 좋은 아내'라고 답했다. 왜 그렇게 평가 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사고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이미지 수준으로만 신사임당을 인식하고 있었다. 과제 수행 이전에는 이처럼 인물을 이미지 수준으로 인식하였지만, 조사 발표 후에 풍부하게 인물을 파악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듈별 이해 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전히 학생들은 인물을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김만덕'을 학습할 때처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물의 삶을 따져보는 입체적인 탐구 방법이 아닌 단순히 조사한 내용을 습득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모듈별 활동에 덧붙여, 전체 활동으로 모듈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생각을 나눠보는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유교 사회에서 추구했던 전형적·고전적 여성상으로서 일생을 살아 온 '신사임당'의 삶의 형태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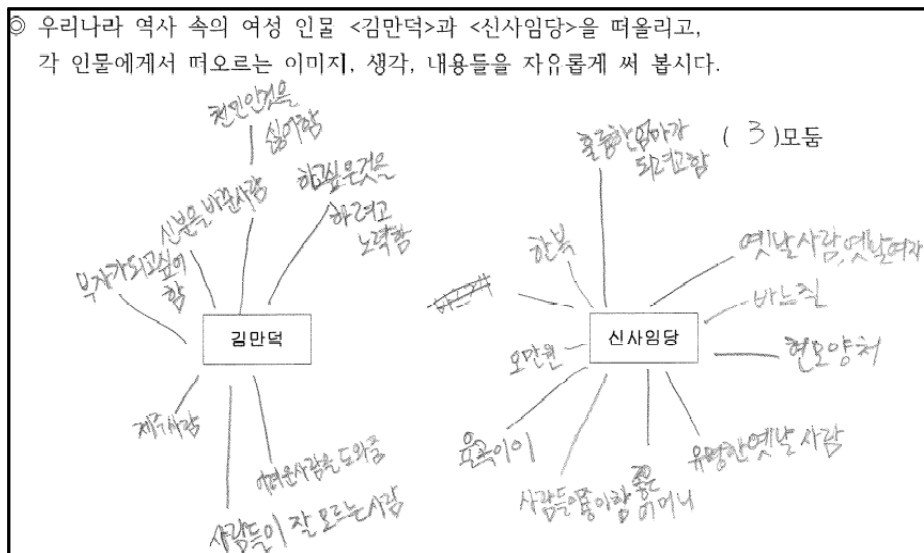
'신사임당'을 이해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김만덕'과 '신사임당', 역사 속의 두 여성 인물에 대한 마인드맵(mind map) 그리기 활동을 실행하였다. 두 인물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형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활동이 아닌 모듈 활동으로 실시하였다. 아직 초등학생들은 자세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나 구체적인 생각이나 사실을 글로 서술하는 것은 어려워한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식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마련하였다.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의 인물 이해 정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III-2]와 [그림 III-3]은 '김만덕'과 '신사임당'에 대한 학생들의 마인드맵 활동 결과물이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그림 III-2]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김만덕을 '제주'에 살았던 '여자'이고 '천민인 것을 싫어'했던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식했다. '신사임당'은 '오만원권'에 나오는 '여자' '위인'이며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으며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도록 노력한 '좋은 어머니'로 인식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III-2]를 통해서 아쉬운 점도 드러났다. 학생들은 인물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와 과정을 겪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

[그림 III-3]에서는 조금 특별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였다는 사실 이해를 바탕으로, '김만덕'을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김만덕'이 천민인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분을 바꿨다고 인과관계에 맞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물의 삶에 대하여 입체적인 파악도 점차 해나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나타났는데, '김만덕'에 비하여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사실의 나열이나 인물 행동의 결과만이 나타날 뿐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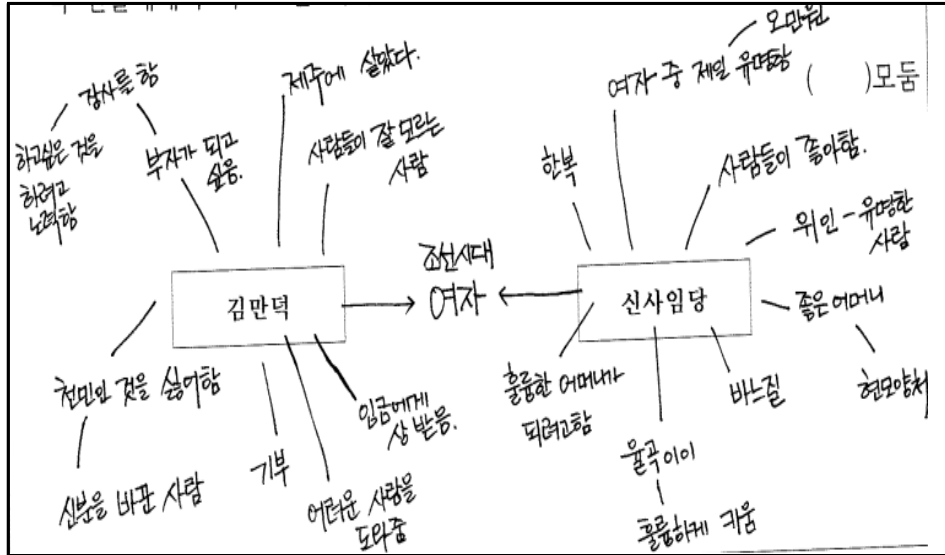


[그림 III-2] 김만덕과 신사임당 마인드맵 ①



[그림 III-3] 김만덕과 신사임당 마인드맵 ②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들의 마인드맵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 [그림 III-4]과 같다.



[그림 III-4] 마인드맵 활동 내용 정리

학생들은 김만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민’ 출신임에도 ‘부자’가 되었던 ‘조선시대의 여성’으로 설명했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파악했다. 또한 그 노력을 바탕으로 얻은 부를 남을 위해 돕는 긍정적인 인물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사임당은 ‘지폐’에 등장할 정도의 ‘과거 속의 유명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생들은 신사임당을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낸 사람’, ‘좋은 어머니상’, ‘현모양처’의 대표 인물로 파악했다.

이 활동의 실행 결과,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인물에 대한 긍정적 내용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체적인 인물 파악을 위해서는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비판적으로 인물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긍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학습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김만덕’과 ‘신사임당’, 두 인물의 행위 결과만 밝혔을 뿐 이 모든 행위가 인물 각각 나름의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특히 ‘신사임당’에 대한 마인드맵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모양처’ 혹은 ‘좋은 어머니’ 등과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 결과만이 나열되어 있다. 즉, ‘신사임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현모양처가 되었는지’, ‘어

떠한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부재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두 인물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활동을 마련했음에도 학생들은 '김만덕'에 관해 치우쳐 학습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신사임당'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인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어떤 여성상이 적합할까?'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제시한 이유는 여성의 지위가 끊임없이 변화해 온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성 인물을 판단해보는 기회를 갖고자함에 있었다. 활동 전에 다양한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틀린 생각은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었다. 학생들은 간혹 시대적 상황을 참조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감정만을 이입하여 '우리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자유 시간이 많아져서 좋겠다'던지 '집에서 동생을 돌봐주면 좋겠다' 등의 엉뚱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던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T: 김만덕과 신사임당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인물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의 여성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여 봅시다.

S1: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사임당처럼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살림하는 여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엄마도 김만덕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2: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상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S3: 자신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꼭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어울리는

4) '현대 사회에 적합한 여성상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교사는 T, 학생은 S라고 밝혀 기록하였다. 20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참여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신사임당 보다는 김만덕 할머니가 더 지금 시대에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밑줄은 연구자 강조>

학생1(S1)은 현대 사회를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고 파악하였다. 그래서 남성이 직업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김만덕'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생2(S2)는 자녀의 수가 적은 소규모 가족이 등장하는 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가정과 육아의 중요성에 집중하였다. 때문에 '신사임당'을 현대 사회에 적합한 여성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3(S3)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시대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살았던 김만덕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발표하였다.

이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인물 이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기준을 마련하여 '김만덕'과 '신사임당'을 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 발표하였다. 보통은 그 인물이 자신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파악하는 단순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활동은 학생이 살고 있는 시간을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두 인물 중 한가지만을 선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두 인물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물들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절충하는 대안을 마련한 한 학생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여성인물학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S4: 요즘 엄마는 집안일도 잘 해야 하고, 직장에서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엄마를 우리들과 아빠가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엄마들이 신사임당과 김만덕 두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밑줄은 연구자 강조>

3. 학습 활동 재구성

가. 재구성의 관점

여성인물학습을 실행하고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첫째, 역사 속 여성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 여성의 지위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도 미세하게나마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이 사회적 지위 혹은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성 인물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여성’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성’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활동 1>과 <활동 2>에서 김만덕이 신분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나 김만덕이 직업을 갖고 거상이 되었던 점 등을 학습 할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그 시대를 바탕으로 여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인물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에 활용하고자하는 여성인물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대에 관한 사전 학습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여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여를 통해 여성인물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 여성에게 주어졌던 고전적 덕목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김만덕과 신사임당의 삶을 비교하고 현대 여성상을 찾아보는 <활동 3>에서 학생들은 자칫 과거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였던 현모양처, 순종적 태도 등의 덕목을 따랐던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신사임당은 고리타분하다거나 현대적이지 않다거나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학생들에게 ‘현대의 덕목은 옳고 과거의 덕목은 그르다’라는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된 것은 <활동 1>과 <활동 2>에서 김

만덕의 삶은 심도 있게 살펴본 반면, 신사임당에 대한 내용은 <활동 3>에서 사전 조사활동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의 오류는 여성인물학습을 구성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여성인물학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학습에서 놓쳤던 다양한 시각과 사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에 있다. 앞서 제시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여성상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활동 속의 한 학생(S2)의 언급처럼, 신사임당의 가정에 대한 헌신적 태도라는 과거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덕목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여성인물 학습의 목표이고 효과이다.

나. 세부 활동 재구성

앞의 구성한 활동과 재구성한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수정·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⁵⁾

1) <활동 1 재구성> 조선시대의 여인 김만덕, 그녀는 누구?

<p>【구성】 ① '김만덕' 인물 그림 보며 이야기 나누기→ ② '김만덕' 그림이 들어 있는 5만원권 지폐에 대한 생각 나누기→ ③ '조선시대의 김만덕' 탐구하기→ ④ '김만덕' 되어보기→ ⑤ '김만덕'에게 편지쓰기</p> <p>【재구성】 ① '김만덕' 인물 그림보며 이야기 나누기→ ② '김만덕' 그림이 들어 있는 5만원권 지폐에 대한 생각 나누기→ ③ <u>조선시대 여성의 한계 알기</u>→ ④ '조선시대의 김만덕' 탐구하기→ ⑤ '김만덕' 되어보기→ ⑥ '김만덕'에게 편지쓰기</p>
--

원래 구성한 활동 ①, ②, ④, ⑤, ⑥에 덧붙여 <③ 조선시대 여성의 한계 알기> 활동을 추가하였다. 활동 ①, ②, ④, ⑤, ⑥에서는 아직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

5) 재구성의 순서 번호는 재구성에 따른 세부 활동을 수정·추가하여, 최초 활동 구성의 흐름에 추가한 후 흐름에 따라 부여하였다.

은 과거의 여성 '김만덕'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시대를 살았던 '김만덕'에게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 한계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김만덕'의 삶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당시 사회의 한계는 어떠한지, '김만덕'과 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조선시대 여성의 한계를 알아보는 활동 ③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추가된 활동 ③은 이어지는 활동 ④ <'조선시대의 김만덕' 탐구하기>에서 조선시대의 유교사회, 봉건사회, 신분사회 속에서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김만덕'의 삶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돕는다. 당시 천민이자 여성이었던 '김만덕'이 신분을 벗어나고 직업여성으로서 활동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을 둘러싼 사회 제도 속의 한계를 찾기 위해 현대와 조선시대 제도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활동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체계를 설명하고 제시하는 강의식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현대 사회 속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약이 많았던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스스로 도출해본다. 학생들이 조선시대 여성의 한계를 현실 속에서 체감함으로써 '김만덕'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더욱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 2 재구성> 21세기 리더십, 나눔과 베품의 정신

【구성】 ①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살펴보기→ ② 직업인으로서 '김만덕' 들여다보기

【재구성】 ①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살펴보기→ ②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역할극 꾸미기**→ ③ 직업인으로서 '김만덕' 들여다보기

원래 구성에서는 활동 ③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활동 ①을 선행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힘들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시대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②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역할극 꾸미기> 활동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기존에 구성된 활동은 그림 자료를 통해 살기 힘들었던 제주의 환경을 인식하고 '김만덕'의 일화를 정리한 이야기 자료를 통해 나눔과 배움의 가치를 실천에 옮겼던 김만덕의 삶의 태도를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다.

추가로 구성된 이 활동은 학생들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역할극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인물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 스스로 비참했던 제주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미고 발표함으로써 인물에게 몰입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파악과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활동 3 재구성> 같은 시대, 다른 생각

【구성】 ① 여성인물 마인드맵(mind map) 그리기→ ② '21세기 여성상' 세우기→ ③ '김만덕'이 되어 현재의 나에게 편지쓰기

【재구성】 ① 신사임당의 삶을 살펴보고 여성인물 마인드맵(mind map) 그리기→ ② '21세기 여성상' 세우기→ ③ '김만덕'이 되어 현재의 나에게 편지쓰기

원래 구성한 활동 ①을 <① 신사임당의 삶을 살펴보고 여성인물 마인드맵(mind map) 그리기>로 수정하여 추가 재구성하였다. 두 여성인물 비교·분석하는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김만덕' 만큼이나 '신사임당'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사임당'에 대하여 개별 조사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원래의 활동에 덧붙여 '신사임당'의 일화 중심으로 교사와 함께 인물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활동을 수정하였다.

'신사임당'이 조선시대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대표적 여성상이 되기까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가정

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묵묵하게 내조하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에 일생을 다 하였던 '신사임당'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김만덕'과 '신사임당'의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에 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V. 결론 및 제언

‘김만덕’을 활용한 인물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실행하면서 연구자가 여성인물학습에 관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만덕’과 ‘신사임당’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학습했음에도 학생들이 여성인물에 대해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초등학생들에게 여성인물학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성인물학습을 실시하기 전,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인물이 누가 있는지 질문해보았다. 학생들은 나라를 세웠던 인물, 큰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 과학이나 문화를 발전시켰던 인물을 중심으로 답하였는데, 이 때 학생들이 제시한 인물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남성 인물만을 대답한 이유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알고 있는 여성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 인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과 역사학습을 받아온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사에 존재했던 여성을 남성보다 덜 중요한 존재 혹은 미미한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만덕’을 활용한 여성인물학습을 한 후에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반응은 달랐다. 학생들은 이전의 인물들을 거의 유사하게 대답하였으나, 여성인물학습에서 배웠던 ‘김만덕’과 ‘신사임당’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떤 여성인물이 또 있었는지 물어보는 학생도 생겨났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여성인물들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여성인물 몇 명만을 접해보는 작은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여성인물 탐구로 확장된 것이다.

둘째, 여성인물학습을 할 때,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 여성 인물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혹은 그 시대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인물학습은 과거 속에 존재했던 여성의 생각, 행동, 삶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그 것의 의미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생각이 있음을 배우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 때, 여성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여성을 둘러싼 상황적,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존재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시대별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의무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여성인물학습에서는 선정된 여성 인물이 가지는 시대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제가 중요하며, 인물을 둘러싼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학습을 진행해야만 더 효과적인 여성인물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

셋째, 과거의 다양한 여성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통적 여성상인 신사임당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식의 접근은 다양한 시각을 학습하기 위하여 도입된 여성인물학습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각 시대가 요구해왔던 여성상만을 학습의 소재로 하는 것도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폭을 좁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대 상황을 뛰어넘어 평가될 수는 없으나 반드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여성만을 소재로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남성만을 강조했던 기존의 수업과 같은, 시대적 기준에 맞는 여성이 훌륭한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성인물학습은 민주사회 및 양성평등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와 균형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역사학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여성인물학습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여성인물학습의 구체적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인물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여성인물학습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여성인물을 발굴하거나 여성인물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 여성인물학습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실제 사회과 교육과정에 투입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필요성을 강조하여 인식을 환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물학습이 이론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삶의 가치를 사회과 학습에 적용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활동의 예시가 많아진다면 교육현장에서의 여성인물학습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여성인물학습 과정에서 지나치게 여성 중심으로 치우쳐 사고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여성인물학습은 기존의 사회과 역사 수업이 남성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충분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을 발굴하고 그 인물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배워나가고자 함에 여성인물학습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칫 여성 중심으로 치우쳐 기존의 남성 중심의 수업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편향적인 수업이 된다면 여성인물학습 또한 우리에게 반성의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여성인물학습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며, 여성 중심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지연. (1994). 역사교육에서의 인물학습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우철. (1982). **역사의 교육**. 교학사.
- 건입동마을회. (2008). **建入洞誌**. 건입동마을회.
- 고대수. (1990). 사회과 역사 분야의 인물학습 지도 방안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구석봉. (1995). **한국사를 뒤흔든 여인들**. 을유문화사.
- 김만곤 외. (2002). **사회과 교육의 실제**. 대한교과서(주).
- 김성한. (1998). **한국사 천년을 만든 100인**. 오늘의 책.
- 김영두. (2007). **한국사 傳 : 조선의 여성 CEO**. KBS Media.
- 김은석. (2011). 제주 여인, 김만덕.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4**. 대한기계학회.
- 김인숙. (2006). **제주의 빛 김만덕**. 푸른숲.
- 김재인. (1995). 여성교육이 여성의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광복 50주년 기념 논문집 제8권**.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정자 외. (1986). 초등학교 국사 교육에 있어서 인물에 관한 조사 연구. **대구사학 제15·16합집**. 대구사학회.
- 김현숙. (2000). 사회과 인물학습을 위한 여성 인물 선정과 교수·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수, 최용규. (1998). 초등학교 국사교육의 인물선정 연구. **역사교육 60**.
- 류방숙. (2000). 초등학교 역사인물 학습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순. (1997). **발달심리학**. 교육출판사.
- 박미선. (2013). 여성 리더십 사례 연구:김만덕, 안철수, 유한킴벌리 CEO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 (1994).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구조 분석. 숙명여자

-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석분, 박은봉. (1996). **인물여성사**. 새날.
- 박선주. (2014).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 여성 관련 서술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 (1994). 효과적인 역사학습을 위한 지도 방안.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성희. (1997) 여성교육에 있어서 성차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달래. (2008). 아름다운 삶의 여정-몰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14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송춘영. (1982). 인물교재의 교육적 기능과 그 지도 방안. **대구사학 제20·21집**. 대구사학회.
- 이건형. (1978). 역사교과서에 실린 인물에 대한 분석적 평가와 그 비교연구. **대구사학 제14집**. 대구사학회.
- 이명숙. (2001).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교육 실제의 개선. **대구 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7권(2)**. 대구교육대학교.
- 이명희. (2002). 초등사회과 역사교육에서 인물학습의 의의와 방법. **초등사회과교육총론 제4권**. 전북초등사회과교육학회.
- 이상배. (1993). 중학교 국사과의 인물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2002). 현장 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찰-다섯 가지 유형의 현장 연구 설계와 사례. **교육인류학연구 제5권**. 한국교육인류학회.
- 이원순. (1975). **사회과 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원순. (1980). **역사교육론**. 삼영사.
- 이이화. (1997). **역사 인물이야기**. 역사비평사.
- 이정희. (1997).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7). **한국여성관련자료집 고대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홍수. (2005). 초등학생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지역의 역사적 인물 학습·지도 방안.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집. (2001). 초등학생들의 인물 학습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영 외. (2002).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 정수자. (2009). 젠더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창권. (2006).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 주경란. (1985) 교육기회의 남녀불평등. **교육학연구 제23권(2)**. 한국교육학회.
- 최용규, 안재경. (1999). **인물학습의 이론과 실제**. 사회학과교육연구 제3호.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 (1993). 일본, 미국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의 역할. **여성연구 제11권**.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황경화. (2002). 역사 관련 자료가 초등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필영. (2000). 사회과 역사 영역의 인물 학습 연구에 대한 고찰.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National Center for History in the Schools. (1994). *National standards for grade k-4*. University of California.

A B S T R A C T

An Action Research on an Activity Construction for Character Learning Utilizing Kim Man-Deok

Koh, Soo Sun

Major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Eun Seok

This study addressed a construction and practice of learning activity centering on a female character called 'Kim Man-Deok', based on a critical mind that current history learning tend to be focused on the male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known that students can have a curiosity and intention to explore female characters by just encountering female character in an learning. Before they undertook the female character learning utilizing Kim Man-Deok, the students only talked about men in various fields as the historic characters that they knew. However, after they did the learning, they presented Kim Man-Deok as their historic character and also showed curiosity towards other female characters. Students are able to be encourage to explore

female character through an action of female character learning.

Second, the state of a period in which the female characters utilized in history class lived and the female's status at that time need to be identified clearly in a female character learning. The social status of women has changed ceaselessly with the times. That is why the role or obligation required for women could be different as the generation went by. For a female character learn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contextual, periodic and historic background is required above all.

Third, a stereotyped vision on many different women in the past should be watched out for better female character learning. a class in which it is recognizes that the past image of woman was wrong or only the women reflecting an image of the concerned period is selected would be difficult to be deviated from existing class modes that emphasized only men.

A female character learning helps the students living in a democratic and gender-equal society develop a variety of thinking and balanced vision. For more effective female character learning,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in this study:

First, a female character learning needs to be specifically applied at school. If there are more specific illustration examples on how to view women and what life values should be applied beyond theoretical study, their utilization will be enhanced.

Second, excessive thinking centered on women should be on the alert. A female character learning is just adopted to share diverse visions and thoughts, and is not prepared to learn women-centered thinking.

*Key Word: Kim Man-Deok, female character learning, history, diverse visions and thoughts

부 록

[부록 1] 김만덕 표준 영정

[부록 2] 김만덕 그림과 합성한 5만원권 지폐자료

[부록 3] 김만덕 인물 관련 자료

[부록 4] 김만덕 일화 중심의 이야기 자료

[부록 5] 〈활동 1〉 교수 · 학습 지도안

[부록 6] 〈활동 2〉 교수 · 학습 지도안

[부록 7] 〈활동 3〉 교수 · 학습 지도안

[부록 8] 김만덕에게 쓰는 편지 활동 - 편지지

[부록 9] 신사임당과 김만덕 마인드맵 - 활동지

[부록 1]

김만덕 표준 영정

[그림 부록-1] 김만덕 표준 영정



[부록 2]

김만덕 그림과 합성한 5만원권 지폐 자료

[그림 부록-2] 김만덕 그림과 합성한 5만원권 지폐 자료



(원본 비교- 신사임당 5만원권 지폐 자료)



[부록 3]

김만덕 인물 관련 자료

〈표 부록-1〉 김만덕 인물 관련 자료

김만덕은 제주에서 영조 15년(1739년)에 양가집 규수로, 양인 신분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기생의 양녀로 자랐기 때문에 기적에 올라 기생이 되었다. 용모와 가무가 뛰어나 당대 제주 제일의 명기라 했다. 23세 때 양녀로 복귀한 그녀는 객주업을 시작으로 토산품을 반출하는 등 탁월한 수완을 보여 큰 부자가 되었다. 정조 18년(1794)의 이른바 갑인년 흉년은 제주도의 10만 명의 인구가 그 이듬해인 을묘년에는 3만으로 줄어, 무려 7만의 인구가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은 엄청난 재난이었다.

이 때,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도민을 진휼하였는데, 이를 가상히 여긴 임금의 부름을 받아 상경하여 후한 상을 받고, 또 그녀의 소원대로 도성과 금강산을 유람하게 되는 은택을 입었다. 더욱이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은 ‘만덕전(萬德傳)’을 지어 그녀에게 보내었다 한다. 김만덕은 순조 12년(1812) 10월 12일에 74세로 죽었는데, 유언에 따라 제주 성안이 한 눈에 보이는 ‘ㄱ오니ㄹ루’ 길가에 안장되었다. 현종 6년(1840)에 제주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진휼 행장에 감동하여 손수 ‘은광연세(恩光衍世)’라 써서 그녀를 찬양하고, 글을 지어 양손(養孫) 김중주에게 주었다 한다.(건입동마을회, 2008)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김만덕은 20세가 지나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양민 신분을 회복했지만 만덕은 결혼하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여 거상이 되었다. 그러나 늘 검소하게 살았다. 그녀가 50대 중반이던 1792년부터 제주에 흉년이 들어 수천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 몇 년째 흉년이 계속되자 1795년, 조정에서 구호미를 보냈지만 바다를 건너 오는 도중 수송 선박이 침몰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만덕은 전 재산을 털어 육지의 곡식을 500여석

사들여 대부분의 곡식을 구호 식량으로 쓰라고 관아로 모두 보냈다. 이듬해 만덕의 선행이 알려지자 정조는 상을 주고자 관을 통하여 그녀의 소원을 묻는다. 만덕은 한양과 금강산에 가 보고 싶다고 답한다. 정조는 내의원 의녀반수 벼슬을 준 후 만덕을 만나고 금강산 관광을 시켜준다. 1812년, 만덕은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제주에서 만덕은 의녀(義女)이자 만덕 할망으로 불리며 존경받고 있다.

[부록 4]

김만덕 일화 중심의 이야기 자료

〈표 부록-2〉 김만덕 일화 중심의 이야기 자료

소금으로 절여진 들녘

재난이 들이닥친 건 정조 16년 겨울부터였다. 제주에서는 심한 흉작으로 가을이 되어도 거둬들일 곡식이 없었다. 근근이 끼니를 이어 갔지만 쌀독은 겨울이 오기 전에 바닥을 드러냈다. 관아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구호 곡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서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풀뿌리를 캐어 먹고 바다풀을 건져 먹었지만 그것들로 목숨을 버티기가 힘들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다음 해에도 흉년이 들었다. 8월에 태풍이 불어서 낱알 한 톨 구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덕은 객주 앞에 술을 내어 걸고 죽을 끓였다. 만덕의 객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시래기에 곡식 몇 줌을 넣어 끓인 멸건 죽이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이 감지덕지 먹었다. 하지만 만덕의 객주라고 곡식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와중에 태풍이 몰아쳤다. 기와를 던지고 돌맹이를 날리던 태풍의 회오리바람에 나뭇잎 날리듯 농작물은 갈가리 찢기어 나갔다. 바닷물까지 덮쳐서 들녘은 마치 소금에 절여 놓은 배추 같았다. 성난 파도가 덮친 들판은 썩대밭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소와 말 4백여 필도 죽었다. 이때 무너진 집이 2천여 호나 되었다. 사람들은 그저 넋을 잃었다.

4년을 내리 흉년이 들었으니 제주에 먹을 것이 남아 있을리 없었다. 나라에서 내린 구호 곡을 받으려 했으나 수송선이 모두 침몰하여 이도 어려웠다. 사람들이 살가죽이 누렇게 부어올랐고, 마침내 죽어갔다. 제주를 뒤덮은 그림자는 깊고 참혹했다.

“어르신, 객주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딜 일이지, 잘 물어 주거라”

만덕의 객주에는 곡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죽을 얻어먹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중에는 먼 길을 오느라 기력을 다한 탓에 객주 앞까지 와서 쓰러져 죽는 이도 있었다. 만덕은 안타까웠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고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야 하지 않겠느냐? 술을 하나 더 내어 걸어라.”

밤낮으로 죽을 꿇었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을 당해내기 힘들었다.

“어르신, 어르신. 또 큰일이 났습니다. 어린애가 쓰러져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던 만덕은 애월의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고 서방이 안고 들어온 아이는 초점이 없는 눈만 멀뚱했다. 목조차 가누지 못했고, 얼굴은 누렇게 부어 있었다. 아랫목에 눕히자 아이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따스한 기운에 배고픔도 잊은 듯했다.

“어르신, 죽을 가져왔습니다.”

만덕은 아이를 안아 무릎에 눕히고 손가락을 들었다. 아이는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손가락을 보는 눈에 번쩍 생기가 도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감았다. 만덕은 아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늦었다. 그걸 알면서도 만덕은 아이의 입에 국물을 떠 넣었다. 국물이 그대로 흘러내렸다.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눈을 뜨고 한 모금이라도 삼켜 보려무나.”

아이가 입술을 움찔했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는 못했다. 아이는 만덕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만덕은 뉘를 놓은 채 아이를 안고 있었다. 뼈마디만 앙상한 아이의 손이 만덕의 무릎 아래 툭 떨어졌다.

“고 서방, 이 아이를 별 바른 곳에 묻어 주게. 그리고 애월아, 너는 고 서방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담아 주거라. 아이를 묻을 때 같이 넣어주도록…….”

만덕의 목소리는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고 서방은 별게진 눈시울을 실룩이며 아이를 안고 나갔다. 만덕은 앉아서 밥을 지새웠다. 여태 살아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인으로 돌아가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죽어 가던 아이가 자꾸 떠올랐다. 무덤 속에 따뜻한 밥을 넣어 준들 굶어 죽은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만덕은 죽어가던 아이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이의 모습 뒤로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술한 목숨들이 겹쳐졌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들, 그건 만덕의 모습이기도 했다. 죽어가는 목숨을 놓고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니었다. 만덕은 껀을 열었다. 그리고 평생 모아 온 돈을 모두 꺼냈다.

[부록 5]

〈활동 1〉 교수·학습 지도안

〈표 부록-3〉 〈활동 1〉 교수·학습 지도안

◆ 학습 주제 : 조선시대의 제주인, 김만덕 그녀는 누구?
◆ 학습 목표 : 조선시대 제주를 살았던 김만덕의 삶의 태도를 파악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

단 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 기 유 발	장면 제시	<p>◎ 김만덕 그림 제시하기</p> <p>▶이 그림을 보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여 봅시다.</p> <p>- 여자예요.</p> <p>- 옛날 사람이예요.</p> <p>- 옷차림이 평범한 것을 보니 평민 같아요.</p> <p>◎ 김만덕 사진이 들어있는 5만원권 지폐 제시하기</p> <p>▶5만원권 지폐에 누가 있나요?</p> <p>- 신사임당입니다.</p> <p>▶김만덕의 사진이 있는 5만원권 지폐를 만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p> <p>- 지폐에는 훌륭한 위인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p> <p>▶김만덕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여봅시다.</p> <p>◎ 조선시대의 김만덕 탐구하기</p>	5'	<p># 김만덕 인물 그림(부록에 제시)</p> <p># 5만원권 지폐와 김만덕이 들어있는 5만원권 지폐 모형(부록에 제시)</p>

단 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인 물 탐 구 하 기	시대 탐구하기	<p>▶조선시대의 신분 사회를 바탕으로 천민이었던 김만덕이 양민, 상업인이 되었던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지 상상하여 이야기 나눠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을 바꾸기가 아주 힘들었을텐데, 천민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았을 것 같습니다. - 평민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돈을 버는 상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상인이 될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10'	# 김만덕 이야기 (부록에 제시) ※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김만덕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탐구하기	<p>◎ 제주인 김만덕 탐구하기</p> <p>▶출륙금지령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지로 못하게 막아서 기분이 나빠요. -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깐 그냥 따를 것 같아요. <p>▶출륙금지령인데, 금강산 구경을 가고 싶다고 왕에게 말한 김만덕을 보고 임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 제주도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p>◎ 김만덕 되어보기</p>	15'	※출륙금지령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학습의 진행을 돕는다.

단 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인물 되어보기	<p>▶자신이 조선시대를 사는 김만덕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하여 발표하여봅시다.</p> <p>- 저에게 주어진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p> <p>- 김만덕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다면 배우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p> <p>◎ 김만덕에게 편지쓰기</p> <p>▶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를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김만덕의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편지를 써봅시다.</p>		<p>※ 시대는 다르지만 제주도라는 같은 지역을 사는 사람으로서 김만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p> <p># 편지지 (부록에 제시)</p>

[부록 6]

〈활동 2〉 교수·학습 지도안

〈표 부록-4〉 〈활동 2〉 교수·학습 지도안

◆ 학습 주제 : 21세기 리더십, 나눔과 배움의 정신
◆ 학습 목표: 김만덕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문제 상황 알기	◎그 당시 제주도의 환경 파악하기 ▶ 제주도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 누더기 옷을 입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	※먹을 것이 없어서 10만이었던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든 상황을 사진이나 이야기로 제시한다.
시사점찾기	김만덕의 삶 들여다보기	◎당시 김만덕의 삶을 들여다 보기 ▶ 당시 김만덕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나요? - 상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였나요? - 집안일만 하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 돈을 벌어오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 김만덕은 직업을 갖기까지 어떠한	25'	※조선시대에서 여자로서, 미혼자로서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김만덕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마음의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정리하기		<p>어려움이 있었을지 상상하여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이 무시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 여자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놀림거리가 되었거나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 더 열심히 일해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p>▶그 어려움 속에서 큰 부자가 된 김만덕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제주의 사람에게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친구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 <p>◎ 친구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p>	5'	미덕을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하겠다.

[부록 7]

〈활동 3〉 교수·학습 지도안

〈표 부록-5〉 〈활동 3〉 교수·학습 지도안

◆ 학습 주제 : 같은 시대, 다른 생각				
◆ 학습 목표 : '김만덕'과 '신사임당'의 삶을 들여다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여성상을 말할 수 있다.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과 제 확 인	인물 조사하기	◎ 신사임당 조사 자료 발표하기 ▶신사임당에 대한 조사 내용 발표하여봅시다. - 조선시대 현모양처의 대표 인물 - 예술분야에서 성과 있음 - 율곡이이를 아들로 두었으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상으로 대표됨. - 가부장적이고 유교문화의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여성상	5'	# 인물 조사지 ※인물 조사는 개별 사전 과제이지만,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모둠끼리 내용을 발표, 보충하여 사전 지식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인물의 삶 떠올리기	◎ 같은 시대, 다른 생각 ▶신사임당과 김만덕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성입니다. 각 인물에게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여봅시다. - 마인드맵 정리	5'	#마인드맵 정리지 (부록에 제시)
토 론	토론학습 1	◎주제1-현대 사회에 적합한 어머니상은 누구일까?	10'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으나 틀린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하기	토론학습 2	<p>▶자신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하여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형제가 없이 혼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상이 더 적합합니다. - 지금은 남자, 여자가 평등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처럼 일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김만덕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p>◎주제2-현대 사회에는 어떤 여성상이 적합할까?</p> <p>▶자신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하여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이므로 김만덕처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여성상이 필요합니다. - 정서가 메말라가는 시대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의 여성상이 더 필요합니다. 	10'	생각은 없다는 것을 토론 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하기	내면화하기	<p>◎역사 인물이 되어, 현재로 편지 쓰기</p> <p>▶김만덕이 되어, 지금의 나에게 어떤 편지를 쓸지 상상하여 써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 쓰기 	10'	#편지지 (부록에 제시)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여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록 8]

김만덕에게 쓰는 편지 활동 - 편지지

〈표 부록-6〉 김만덕에게 쓰는 편지 활동 - 편지지

◎ 김만덕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만덕에 대한 자신 의 생각을 담아 김만덕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학년 ()반 이름: _____

--

[부록 9]

신사임당과 김만덕 마인드맵 - 활동지

〈표 부록-7〉 신사임당과 김만덕 마인드맵 - 활동지

◎ 우리나라 역사 속의 여성 인물 <김만덕>과 <신사임당>을 떠올리고,
각 인물에게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내용들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모듬

김만덕

신사임당